

## 축구야 반갑다!... K리그 개막

# 강풍·폭우 속 '불사조' 날개 접다

### 광주, 전북에 0-2 패 전남, 성남전 무승부

“첫 승 신고는 다음 기회에...”  
광주상무는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지난 시즌 AFC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인 전북 현대와의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홈 개막전에서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0-2로 완패했다.

광주는 이로써 역대 홈 개막 경기 전적은 1승 1무 3패, 전북과의 역대 전적은 14전 4승 5무 5패를 기록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우 속에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광주 상무는 전반 시작과 동시에 첫 골을 내주며 승기를 빼앗겼다.

광주는 전반 16분에도 전북 염기훈에게 하프라인 오른쪽이 뚫리면서 패스를 이어받은 김형범의 오른발 슈트를 막지 못하고 두번째 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날 전북의 승리를 이끈 염기훈-김형범 콤비는 광주에겐 천적과도 같은 존재. 지난 시즌에도 광주와의 3차례 경기에서 3골을 만들어 내는 등 유독 강한편을 보여왔다.

특히 호남대 출신으로 2006년 K-리그 신인왕인 염기훈은 지난해 6월 3일 열린 하우젠컵 광주전서도 2득점하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강조 광주 상무 감독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염기훈을 막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인이었다. 하지만 악천우속에서 열심히 뛰어난 선수들의 패기는 높게 평가한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부산전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시즌 첫 승을 꼭 선사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밖에 서울은 서울삼삼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를 2-0으로 꺾으며 올 시즌 첫 승을 챙겼고, 수원도 대전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2-1 승리를 낚았다. 또 제주와 포항은 각각 부산과 인천에 1-0 승리를 거뒀고, 울산은 경남과 1-1로 비겼다.

한편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남은 지난 3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 상무와 전북 현대의 프로축구 K-리그 개막경기에서 상무의 김승용(오른쪽)과 현대의 김형선이 볼다툼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 분당구 아담동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개막전에서 후반 한 골씩 주고 받아 1-1로 비겼다. 이날 첫 골을 넣은 전남 송정현은 올 시즌

개막 1호 골의 주인공이 됐다. 송정현은 후반 19분 산드로 히로시의 프리킥이 수비벽에 막고 흐르자 골 지역 왼쪽에서 몸을 날려 왼발로 골문을 갈랐다.

전남은 그러나 후반 38분 성남의 삼바 응병 모파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 광주 개막전 이모저모

#### 올 10월 광주 전국체전 집중 홍보

○광주 상무는 오는 10월 14년만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2007년 10월 8일~14일) 성공개최를 위한 범 시민 한마음 행사를 일환으로 무료입장 및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마련.

상무는 이날 2007 K-리그 광주 홈 개막전을 통해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1만8천787명의 관중들에게 전광판 영상물 상영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박광태 구단주 겸 광주시장은 이날 개막사에서 “올 한해도 상무 축구단과 함께 K-리그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길 바라며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1등 광주 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달라”고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등 팬 서비스

○광주상무는 이날 개막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팬 서비스를 선사. 입장관중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평별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자전거, 롯데시네마 영화관권, T.



5일 광주 상무와 전북 현대의 프로축구 광주 개막경기에 앞서 생활체육 즐넉기동호회 회원들이 즐넉기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G.I FRIDAY'S 무료식권, 미래로 21병원 종합검진권, 원광대 한방병원 경육고 등을 증정하는 한편 경기전과 하프타임에는 빅맨 키다리 공연과 즐넉기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

#### 벤치 날아갈 정도 강풍에 경기 일시중단

○광주월드컵경기장에 태풍을 연상케 하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운동장내에 마련된 앙텡 코칭 스태프의 벤치가 날아가는 가 하면 후반 26분에는 경기장 주변 광고판이 날

어져 경기가 일시 중단되는 등 경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 후원사 금호고속 사장에 유니폼 전달

○광주 상무 축구단 구단주인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구단 최대 후원업체인 금호 아시아나 그룹 김상산 금호고속 사장에게 상무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전달.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5억원씩 광주 상무 축구단을 후원하고 있는데, 오는 2008년까지 총 23억원을 지원할 예정.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세이하 세계 청소년축구

# 한국 '죽음의 조'

20세 이하 한국 청소년축구대표팀이 2007 캐나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을 비롯해 폴란드, 미국 등 축구 강호들과 함께 '죽음의 조'에 포함됐다.

브라질·美·폴란드와 D조  
北, 아르헨·체코 등과 E조

조동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토론토 리버티 그랜드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에서 열린 2007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6월30~7월22일) 본선 조추첨 행사에서 브라질, 폴란드, 미국과 함께 조별리그 D조에 편성됐다.

이로써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는 '조동현호'는 세계랭킹 2위의 브라질과 유럽축구의 전통강자 폴란드(세계랭킹 23위), 북미의 강자 미국(세계랭킹 28위)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날 조추첨에서 한국과 함께 아시아 대표로 본선에 진출한 북한은 지난 대회 우승팀인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강호 체코 및 파나마와 E조에 속해 역시 '고난의 행군'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일본 역시 F조에서 지난 대회 준우승팀 나이지리아 및 스코틀랜드, 코스타리카와 힘겨운 경쟁을 펼치게 됐다.

한국은 브라질과 역대 전적에서 1승7패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

지난 1981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만난 브라질은 0-3 패배를 안겨줬고, 1983년 멕시코 '4강 신화' 당시 한국의 결승 진출을 막았던 것도 역시 브라질이었다.

1997년 말레이시아 세계청소년선수

A조		B조		C조	
1 캐나다	1 스페인	1 모로코	1 브라질	1 아르헨티나	1 일본
2 칠레	2 우루과이	2 뉴질랜드	2 폴란드	2 체코	2 스코틀랜드
3 콩고	3 오스트리아	3 캄보디아	3 한국	3 북한	3 나이지리아
4 오스트리아	4 캄보디아	4 멕시코	4 미국	4 파나마	4 코스타리카

권대회에서는 무려 3-10패를 당했던 한국은 지난 2004년 부산에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에서 박주영(서울)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챙긴 바 있다.

또 폴란드와 역대 전적에서도 1승2패로 뒤지고 있지만 미국과는 4승2무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조동현 감독은 “어려운 조추첨이지만 폴란드와 미국을 잡고 브라질과 비기는 것으로 목표 2승1무로 반드시 16강전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07 캐나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캐나다 6개 도시에서 분산개최된다.

한국은 현지 시간으로 6월30일 미국과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이어 브라질(7월3일) 및 폴란드(7월6일)와 차례로 맞붙게 된다. 경기장소는 모두 몬트리올이며 경기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동국 30분 출전...평점 6

뉴캐슬 출전 기회 못가져  
설기현 아스널전 출전 못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호 이동국(28·미들즈브러·사진)이 정규리그 경기에 가장 오래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동국은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제임스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18분 미들즈브러의 간판 공격수에 에그네이 아쿠부 대신 교체 투입돼 인저리타임까지 30분을 뛰었지만 슈팅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미들즈브러와 뉴캐슬은 지루한 공방 끝에 득점 없이 비겼다. 이동국은 이날 부진했던 아쿠부 대신 투입되자마자 문전으로 들락날락거렸지만 후반 22분과 23분 두 번 연속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려 공격할 기회를 잃었다.

미들즈브러는 원정 경기의 부담 탓인지 이동국이 투입된 뒤 수비에 치중했고 조지 보아방이 한 차례 슈팅을 날린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

영국 스포츠전문 매체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이날 이동국에게 '빛났다(bright)'는 찬사와 함께 6점을 매겼다.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는 등 슈팅 기회를 번번이 놓친 이동국에게 '빛났다'는 평가를 내린 건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며 움직임 자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편 설기현(28·레딩FC)은 같은 시간 열린 아스널과 원정 경기에서 다섯 경기 연속 엔트리에서 제외돼 주전 경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아스널은 질베르투 실바의 페널티킥 골과 줄리안 밍티스타의 추가골로 레딩을 2-1로 제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